<공군! 자기계발 성공하기!>

<목 차>

1. 공군 자대 배치까지
-기본군사훈련단과 정보통신학교 후기-
2. ★핵심정보★ - 좋은 특기와 자대

서론

남성 오르비언 님들 반갑습니다. 군대를 가야 하시죠??

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뭔가 2년의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기에는 아깝습니다.. 우리 오르비언 님들이라면!! 2년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기도하고 좀 더 클린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고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카투사를 써봅니다... 후 높은 경쟁률에 떨어졌습니다. ㅠㅠ (카투사 붙었으면 이거 안볼거라는거 다 압니다) 두 번째 꿀이라는 의경도 시험을 봅니다... 후... 3번,4번 시험봐도 계속 떨어집니다. ㅠㅠ
이제 크게 두가지 선택이 남았습니다. 공군갈까 아니면 육군,해군,해병대 갈까 공군은 24개월이고 후자는 21~23개월입니다. 3개월 차이가 나서 고민이 됩니다. 고민되는 여러분께 고민해소를 위해서 이 파일을 씁니다.

공군의 장점
1) 자대와 특기를 자신의 선택과 능력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육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직과 자대가 이미 랜덤으로 정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힘든 군생활을 하게될지 편한 군생활을 할지가 모두 랜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공군의 경우 자신이 총을 잘 쏘고, 종평을 잘 보고 , 특기학교에서 열심히 한다면 자신의 집과 가까운 자대, 편한 자대를 갈 수 있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우습게 볼 면이 아닙니다.

2) 사람들이 클린한 편이다.
또라이보존의 법칙이라고 어떤 집단을 가더라도 또라이와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다만 공군의 경우 최소한의 필터링을 걸치기 때문에 다른 군에 비해 일반적으로 클린한 편입니다. 또한 선진 병영 체계 답게 신고 시스템도 매우 잘되어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 병사도 다른 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3) 2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군도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훈련을 많이하는 부대의 경우 그냥 부대훈련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군은 독서실같이 열람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럼 공군의 단점: 3개월 길다는게... 저어어엉어어말... 깁니다

1. 공군 선발 과정

http://blog.naver.com/daybyday1119/220614571590
여기 와서 확인하세요.. ㅋㅋ 저는 15년도 기수라서 새롭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일반” 특기로 가려고 할거에요 제 생각에 일반 특기에서 “헌급방” 특기만 피하면 대부분 특기보다 편합니다.
원래 수능 및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2016년 2월부터 폐지가 되어서 한국사 자격증, 토익시험, 헌혈, 봉사 등의 가산점 싸움이 되었습니다.
“공군 갤러리” 를 통해서 커트라인 점수와 비교해보시고 부족하시면 가산점을 더 쌓아서 입대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신이 일반특기 가기위한 가산점을 따기가 귀찮다면... 정보기기운용기능사 같이 기능사 하나 따서 통신전자정비 특기로 비전공자 임에도 2순위로 바로 입대하실수 있습니다.

1차를 합격하시면 2차에 면접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 공군회관쪽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1차에 있어서 커트라인이 간당간당 하신것만 아니면 2차 면접에 큰 부담을 갖으실필요는 없습니다. 결시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안히 하고싶은말씀 하시고 정상인처럼만 나라지키고 싶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그런데 예전보다 면접비중이 조금은 커진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면접때 크게 물어보진않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안보관을 갖고 , 자신이 정상인이 아니더라도 정상인 빙의해서 어필하면 될것같습니다
~~(사실 공군에 면접이 있음에도 얘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거지? 싶은애들 엄청 많아요)~~

2. 공군 입소 과정

공군에 합격하신 전우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입대날에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 와서 입대를 하시면 됩니다. 홀수기수 (ex 721기) 의 경우 신병 1,3대대로 배정이 되고 짝수기수(ex 754기) 의 경우 2,4대대로 배정이 됩니다. 시설로 따지면 2〉1〉〉〉〉4〉3 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짝수기수로 입대하시길 바랍니다. 입대전에는 에이.. 군대가는데 시설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시겠지만.. 입대 후에는 2대대 꿀쟁이들... 하면서 다니실 겁니다. ~~(3대대는 2016년 중반에 철거된다네요)~~

=〉 신설 3대대가 설치되면서 시설은 3〉〉2〉〉〉1〉〉〉〉〉(넘을 수 없는 벽)〉〉〉〉4 가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홀수기수때 입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대대가 걸리게되면 넓게쓰기위해서 구 3대대 건물을 같이 쓴다고 합니다. 제가 3대대 청소하러 가봤기 때문에.. 참.. 사람이 살 곳이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훈련소 대대 때문에 일부로 한 달 뒤에 입대하거나 그럴필욘 없습니다. 자대오면 다 한 달만 빨리올걸.. 이러기 때문에

입대 준비물은 입영통지서에 있는 것대로 챙겨 오시면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우표와 필기도구 그리고 개인 상비약입니다. 나중에 편지를 부칠 수 있게 되는데 유일한 소통구 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필기구는 종평때 공부하기를 위해 제트스트림 멀티펜(3,5색) 추천 드립니다. 개인 상비약은 처방전이 있어야합니다. 개인 처방전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먼지가 많은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침 기상을 기침과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그냥 훈련 받기도 짜증나는데 콧물 흐르고 기침하고 목아프면 훈련의 강도가 나만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냥 입대전 병원 가서 **감기약 2주치** 미리 사서

들어가세요.. 저한테 고맙다고 나중에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똥쟁이다 싶으시면 **두루마리 휴지**도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조교들이 다 집에 보낼 거니까 왠만한거 다 보내라고 할텐데 두루마리 휴지 왜 안냈냐고 뭐라 하진 않더라고요. 왜 필요하냐면 보급휴지를 정말 천천히 주기 때문에 똥싸고 싶어도 휴지가 없어서 똥을 못싸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훔칠게 없어서 휴지를 훔치기도 합니다.

진주에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진주에 냉면과 고기가 유명하다는데 정말 그것밖에 먹을 게 없더라구요.. 진주 시장이나 터미널 쪽에서 고기 드시고 입대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어차피 곧 훈련소에 가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건지 뭐를 먹는 건지도 모를 겁니다.. 크크크

훈련소에 이제 가게 되면 입소식 행사를 하고 부모님과 분리! 를 하게 될겁니다 이때 울지마시고 떳떳하게 부모님을 보내드리면 천막 밑에서 자기가 신병 몇 대대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홀수 기수인 경우 다들 3대대를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앞에 종이에 명단이 있는데 자신의 이름과 그 옆에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숫자에 3으로 시작하거나.. 4로 시작한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망했습니다. 3대대와 4대대입니다. 3대대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겁니다. 침상에는 금이 가있고 한 방에 20명씩 자고 정말 귀신나올 것 같은 곳입니다. 반면에 1대대와 2대대가 걸렸다면..
축하드립니다.
=〉 이제 3대대가 신형건물로 바뀌어서 3이라고 써있으면 좋은 기수가 되는 겁니다 아마 1대대인지 3대대인지의 규칙은 이름순에 따라서 결정될겁니다. 왜냐하면 동명이인들은 최대한 다른 대대에 있더라구요

훈련소에서 일주일 동안은 입대장병으로 불립니다. 일주일 기간동안 신체검사와 각종 검사만 하고 계속 대기.. 대기의 연속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여기에 있는걸까? 나는 정말 군인인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듭니다. 이제 금요일이되면 무슨 질병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집에 가는 훈련소 동기들이 생깁니다. 5일동안 있었지만.. 정이 들었는데 간다고 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치킨먹으러간다고 놀리면서 그들은 떠납니다..

그들이 떠나고 이제 머리를 밉니다. 스님처럼.. 하얗게 밉니다. 머리를

자르고 거울을 보니 한 마리의 오징어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잘생겼던 동기도 오징어 쭈꾸미가 되어있습니다... 남자는 머리빨이구나를 느끼며 머리를 감아봅니다... 뭔가 머리가 머리같지 않고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느낌입니다. 머리도 수건으로 몇 번 털면 금방 마릅니다.

훈련소 1주차 끝 2주차 본격 기간 시작

이제 입대장병이 끝나고 훈련병이 되었습니다. 봐주던 조교들도 이제 훈련병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다닙니다. (아니!! 동기부여를 해준다고? 사회에서는 좋은 뜻인 동기부여는 이곳에서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났다하기 등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초기에 각종 제식 훈련들을 합니다. 맨손 제식 총기 제식을 합니다. 소리를 크게 질렀지만... 소대장과 조교들은 목소리가 작답니다. 한번 구릅니다... 제식은 힘들지 않지만 구르다보니 힘듭니다. ㅠㅠㅠ 일주일동안 각종 제식과 이론초기교육을 받습니다. 아차!! 각종 근무가 있습니다. 행정근무, 군기근무, 군수근무, 보급근무, 호실선임 등등... 안해도 무방합니다만 꼭 해야한다면 보급근무와 중대기수를 하세요 보급근무는 세탁기 돌려주는거고 중대기수는 그냥 깃발들고있는건데 아무것도안하고 깃발들고있어서 총도 어깨에 매고 갈 수 있어요!!! 군기근무는 절대로하지마세요!!!!! 기훈단에 보면 낙서에 꿀수 꿀기근무 개꿀이라고 쓰여 있는데 ㅋㅋ 왜 써있을까요?? 꿀이 아니니까 써 있겠죠?? 군수근무는 군장관리하는건데 엄청 귀찮습니다.. 훈련 끝나고 좀 쉬려고하면 꿀수근무 군장 애들거 걷어서 가져오라 고하고 훈련하기 전에는 컵 소독해야한다고 갖고 오라고합니다. 이제 제일 빡센 군기근무는 총가키 일면 꿀가키 담당입니다. 자신의건물이 4층이라면? 1층에 내려가서 조교한테 총가키를 받고 총을 다 열어주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반납해야합니다. 이런 어메이징한 근무들을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군인은 주말에 쉰다고 들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름시즌인 경우 제초를 하고 겨울 시즌인 경우 제설을 합니다. 각종 청소를 시킵니다. 밥먹으러 가는길은 얼마나 귀찮고 먼지..

2주차 끝 3주차 시작
이제 군가를 알려줍니다. 군가를 부르며 훈련장까지 가고 또 구릅니다..
이때는 총검술이라고 멋진것 같지만 역시 또 구릅니다... 마지막 구호는
구령을 내지말랐는데 꼭 구령이 나옵니다.. 입대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뭔가 머리가 이상합니다. 입대하기 전에 들었던 노래들의 가사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오로지 기억나는건 군가... 그래서 오직 군가만이
들리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대장병 기간일때는 군대리아를
먹었을때 맛이 없어서 버렸었는데.. 이제 군대리아가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먹기위해 줄을 재빨리서고.. 밥을 맛있게 먹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망의 특기분류 시험도 있습니다. 일반특기들은 정말 점수로 갈리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것은 못푼것은 무조건 찍어라!!입니다. 그리고 각
특기에 반영되는 항목만 잘 보면 됩니다. 즉 아무리 전체적으로 잘 봐도
자신에게 유효한 항목의 점수가 낮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시간이 정말
부족할겁니다. 다른 영역은 과감히 버리고 그 시간들을 투자하는 게
정답입니다. 일반특기는 주로 국, 영, 수 과목이 반영되는데 다른 전자, 기계
과목들은 다 찍고 그 시간에 국, 영, 수 과목을 무조건 풀어야합니다.
3주차때 각개전투 사격연습 총검술 각종 훈련들이 이어집니다. 실내
이론교육장에서 교육 받을땐 어찌나 졸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격훈련
시간입니다. 영점 사격을 합니다. 잘 안맞습니다.. 망한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사격시간입니다. 20발중에서 5발 명중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훈련소때는
몰랐는데 사격은 정말 총빨 입니다. 자신의 총이 조금이라도 이상한거 같으면
망설이지 말고 바꾸세요!!! 사격한 발당 3점이라 종평보다 높아요!! 사격
과락을 했기 때문에 사격을 하러 또 가야합니다.. ㅠㅠ 사격장에 가야할 때
깔딱?? 껄떡 고개라고 넘어야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차피 재사격해도 한번
과락은 영원한 과락!! 10명중에 2명정도가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과락의 점수를 맞으며 탈출이 불가능 ㅠㅠ
이제 유격 시즌입니다. 유격체조할 때 진짜사나이에서만 보던걸 자기가
하게됩니다. 왜 샘해밍턴이 8번체조를 외쳤을때 주위에서 싫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이바를 착용하고 전투화를 신고 하다보니 몸통돌리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유격체조의 시간이 끝나면 유격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격 랜드!! 정말 재미있습니다. 어렵지도 않구요 유일하게 힘든건

유격때는 걸으면 안된다는거?? 유!격! 유격대! 라고 말하면서 계속 뛰어야합니다. 화생방 가스체험도 이제 하게됩니다. 낙서에보면 화생방 딸기맛이라고 써있는데 진짜 딸기맛입니다 ㅋㅋ
화생방보다 화생방하러 가는 길이 더 힘들다고 되어있는데 진짜 공감입니다. 화생방 생각보다 할만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행군 1번 할바에 화생방 5번 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5주차!! 행군과 종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군은 정말 다시하라고 하면 못할것 같아요. 오전에는 산악행군 위주로 했었네요.. 높은경사들을 지나고 위로 올라가고.. 발이 아플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어깨가 너무 아파요!! 총도 메고 군장도 메니까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쉬고 오후에는 기지외곽을 한바퀴 돕니다. 이때는 음료수랑 마이쭈 이런거 계속 먹으면서 버틸 수 밖에 없어요.. 행군 정말 힘들어요 ㅠㅠ
그나마 내가 미래에 갈 특기학교(행정학교,군수학교)를 보며 희망을 갖고 꾹 참고.. 가는거죠 행군이 끝나고 이제 종평이 남았습니다. 종평에 대한 팁을 주자면 정말 치사하게 냅니다. 예를들어 수업때 안중요하다고 말해놓고 그냥 넘어가던게 나오기도하고 비밀번호를 8자리 이상 만들라고 배웠는데 시험에서는 7자리 이상으로 나와서 틀리기도 합니다. 정말 치사하게 나오니까 유의하세요.
기훈단에서 점수편차가 가장 큰 순서는 사격 〉 종평 〉 각종 훈련(유격 포함) 〉 가감점입니다. 종평은 공부만 하면 어느정도 편차가 적어요 적으면 2에서 많으면 6정도?? 그래서 별로 변별이 안되는데.. 사격의 경우 안좋은 총을 받아서 과락을 해버리면.. 예를들어 자신은 6발을 쐈고 다른 동기들은 18발,15발을 쐈습니다. 그럼 이미 12,9발 *3 =〉 36~27점 차이가 나서 간격을 좁힐 방법이 없습니다. 사격한방!입니다. 종평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야간사격과 방독면 사격을 합니다. 그냥 막 쏴대면 됩니다. 다만 야간사격은 춥고 방독면 사격 다하고 방독면 벗을때 헬멧 땅에다 던지면 큰일나요.. 아 그리고 종교는 불교!! 추천해요 재미있어요 기독교는 여자보러 가는곳!! 천주교는 정말 예배드리러 가는곳!!
축하합니다!! 이제 훈련소를 수료 했고 2박3일의 외박이 주어집니다
2박3일 후 각자 특기에 맞게 특기학교에 가게 됩니다.
Ps: 기훈단 등수가 낮게나왔다고 너무 낙심하지마세요 저 역시도 기훈단

성적은 사격 때문에 낮았지만 특기학교에서 1등을 해서 수도권 자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학교 후기
정보통신학교에 가기 전에 검색을 해보았는데 꿀통교 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 기수의 횡포로 인해서 헬통교로 바뀌는 기점이었습니다. ㅠㅠ 처음에는 동기부여도 시키고 빡세게 하다가 한 3~4일쯤 되니까 TV도 밥 먹는 시간빼고다 볼 수 있고 정말 천국 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학교에는 많은 특기가 있었지만 거기에 연등관제 라는 특기도 있었습니다. 운항관제 라고 불리는 특기인데 저때만 해도 70%가 SKY 대학 출신이어서 자대싸움이 너무 치열한 나머지 매일 연등실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특기는 운항관제 사람들 이어서 연등관제 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자대를 고르기 일주일 전, 연등관제 사람들은 서로 살려달라면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ㅠㅠ 정통교에서는 거의 매일 BX가 운영되어서 맛있는 과자 음료수를 먹을 수 있구요 체련시간이라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요 일과후에도 원하면 그냥 체련하면되구요.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하는 하루들의 연속 이었습니다. 다만 자대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조교들의 불시검문만 빼면요.. ㅋㅋ 정통교에서는 주로 학과수업이 MAIN 시간이고 일과후에는 병영생활평가라고 점수에 들어갑니다. 조교들이 불시에 와서 관물함 정리상태, 팔처리 등등을 점검해서 평가를 매기는데 이게 의외로 점수 영향이 큽니다. (특기학교 시험이 나름 쉬운편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관물함 정리에서 감점만 안받아도 상위권이 가능합니다!
아 특기학교도 근무가 있는데요. 식기근무, 호실선임, 과정선임, 체육근무, 의무근무, 행정근무 여러근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서 식기근무와 호실근무를 추천드립니다. 식기근무는 말그대로 급양병들을 돕는근무인데 식기근무를 보통 기피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뽑을때 앞줄에 서게되면 편한거 시킵니다. 부식옮기는거나 바닥에 물뿌리는거나 뒷줄에 가게될수록 설거지나 다음끼니 만들거나 힘든걸 시킵니다. 식기근무를 하게되면 가점도 받고 아침구보를 안뛰어도 됩니다. 다음은 호실근무입니다. 청소시간에 다른구역에 청소하러 갈 필요없이 자기 생활관만 청소하면되고 귀찮긴 하지만 힘들진 않습니다.

기훈단때와 다르게 정통교에서는 감점받을일이 많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걸 꼭 추천드립니다. 아침구보 같은 경우 안하는것보다 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체력검정도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정통교에서는 매주 주말에 면회가 가능하고 매일 전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특기학교와 기훈단 성적으로 자대가 결정되는데.. 자대의 이름과 지명을 꼭 일치해서 메모해두세요!! 제가 특기학교에 있을때 2등이 자대이름과 지역을 잘못 알고있어서 높은등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곳으로 간 전례가 있습니다!.

2. ★핵심정보★ - 좋은특기와 자대

참고사항: 개정된 부분을 따로 다른색으로 표시하지않고 내용수정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 할 겁니다. “한 번의 군생활.. 이왕 가는거 편하게 할바에 고생도 해보고 많이 배우고 싶다” 취향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군생활을 해본 결과.. 힘든 일은 정말 6개월 정도만 해도 느끼는 점들이 많고 정신 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군대라는 특성상 내 자신이 더 안하고 싶은데 안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차라리 편한곳으로 가는게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계발을 하고 싶으신분들은 일과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편한특기가 낫겠죠. 일반적으로 보급특기를 제외하고 사령부급이상의 자대가 가장 좋습니다. 간부, 장교들도 좋은편이고 병사들 복지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이트의 경우 포대 + 관제부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부분 포대가 육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안좋다고 알고계시지만 아닙니다. 최근에 듣기로 관제부대에서 사고가 있어서 경계 순찰이 강화되어서 사이트 생활이 생각보다 많이 힘드실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힘들구요 그냥 육군gop에서 하던 일을 공군 와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제부대 보다는 포대로 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주5일근무하고 주말보장이 되는 일과제 특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크루근무나 일직근무의 경우 위로휴가도 하루 더 받고 자유시간도 더 많아보이지만
정말 쉬는날이 없거나 적고 유일하게 휴가때 쉴수가 있어서 많이 힘듭니다.
공부역시 주5일 일과제특기가 하기 수월함을 장담합니다.
자대를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중략.. 맛보기는 여기까지 입니다)